

# 안전자산 선호에 '골드러시'... 금값 6개월 만에 '최고치'

경기 불확실성, 증시침체에 안전자산인 금 수요 증가세  
각국 중앙은행 매입도 늘어  
금 상품 투자 ETF도 이목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金) 가격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도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8일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기준 금 가격은 온스당 1869.70달러로 장을 마쳤다. 지난해 6월 10일(1871.50달러)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금은 지난해 11월 이후 가격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금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ETF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골드선물 레버리지(합성H) ETF'의 3개월 수익률은 10.88%로 집계됐다. 이어 'KO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국제 금값이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금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DEX 골드선물(H)' 6.11%, 'TIGER 골드선물(H)' 6.07%, 'TIGER 금은선물(H)' 5.94% 등 일제히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상장 금 ETF는 금 선물 ETF와 금 현물 ETF로 나뉜다. 금 선물 ETF는

만기가 도래하면 다른 상품에 재투자하는 롤오버(만기 연장)를 주기적으로 해야 해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금 현물 ETF는 롤오버 비용이 없다는 게 장점이다.

또 현물 ETF는 퇴직연금과 개인연

금(IRP)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하나, 실물 투자이므로 보관료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선물 ETF는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며, 바로 매매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귀금속 가격이 상승하는 골디락스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달러화와 국제 수익률 하락이 이어지면서다. 다. 통상 달러화 약세는 금 가격에 우호적으로 작용한다. 금 가격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 달러화 표시로 거래돼 상당 부분 달러화 움직임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2023 글로벌 경제여건 및 국제금융시장 전망'에서 "2022년 후반부의 금 가격 반등이 2023년에도 상승세로 이어질지는 미 달러화 약세가 어느 정도 더 진전되는지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이 더 확산될 경우 추가적인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곧 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 안전자산 수요의 금 가격 강세 사이클 전이인 예상된다"면서 "단기조정은 장기 금 투자를 위한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했다.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도 늘어나면서 금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은 지난 3분기 약 400톤 규모의 금을 매입했는데, 이는 2000년 이후 최대치다.

김희진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달러(기축통화)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러시아, 터키 등은 과거부터 수년간 중앙은행 준비금에 금을 상당량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 포트폴리오 다변화 수단으로 올해도 중앙은행의 금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申 리오프닝 수혜 기대감... 목표주가 상향

### metro 관심종목

#### 호텔신라

면세·호텔 모두 실적 회복세 뚜렷  
대신증, 9만원→11만5000원 상향



서울신라호텔 전경. /호텔신라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의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호텔신라의 주가가 부진에서 벗어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봉쇄정책이 이어졌던 지난해 3분기 수익성 악화로 호텔신라의 주가는 지난해 11월 장중 한때 최저 6만6000원을 기록,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투자심리가 좋아지면서 주가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2월 8만원선을 회복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5.33% 오르며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호텔 신라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00원(0.35%) 내린 8만4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방역기준 강화 등 여전히 약재가 있지만 관광객 증가로 호텔신라의 면세 및 호텔 부문 실적

이 모두 전년 대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호텔신라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은 전년 동기 대비 23% 오른 308억원으로 예상된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호텔신라의 실적이 4분기에 이어진 면세시장 내 수수료 경쟁 때문에 시장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면서도 "올해 호텔신라의 면세 사업 수익성이 즉각적으로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렵지만, 호텔 부문의 높아진 수익성이 이를 보완해주며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된 4.4%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여행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내국인의 호캉스 수요 지속과 연회 수요 회복으로 호텔신라의 면세와 호텔 사업 부문의 실적이 회복돼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한국 면세 산업 및 호텔 신라의 실질적인 수혜는 올해 1분기 말이나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사들이 잇달아 호텔신라의 목표주가를 상향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9만5000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했으며, 대신증권은 기존 9만원에서 11만5000원으로 목표주가를 27.7% 올렸다. 현대차증권도 기존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혜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여행 수요 점진 회복에 따른 면세와 호텔 사업 부문 실적 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가 동반 상승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실적 회복 방향성에 영향을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선된 투자センチ먼트(투자심리)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

## 경기 안양 등 전국 6곳서 4214가구 공급

### 분양 캘린더

1월 둘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4214가구(일반분양 194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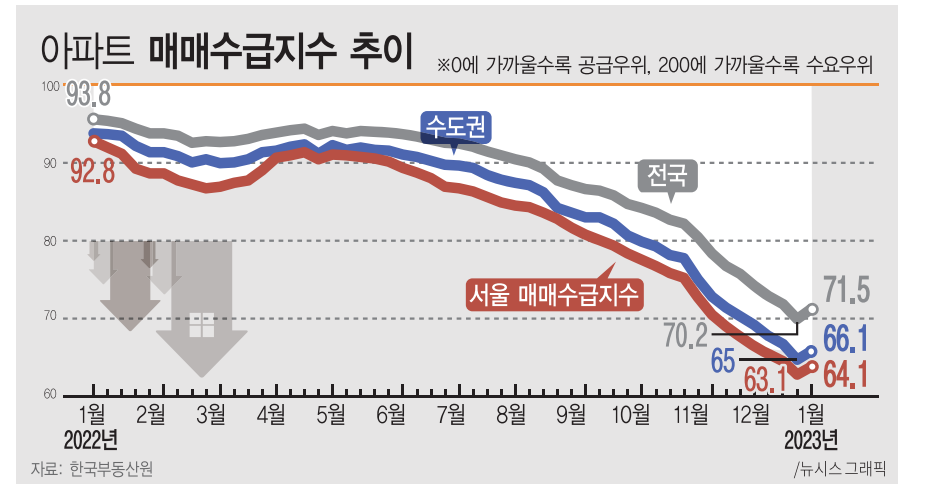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호계동 '평촌센텀퍼스트', 대구 동구 신천동 '힐스테이트동대구센트럴',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하귀푸르미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건본주택은 경남 창원시 안민동 '성산삼정그린코아웰레스트2단지' 민간임대 한 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은 경기 안양시 호계동 일대에서 '평촌센텀퍼스트'를 분양한다. 지하 3층~최고 38층, 23개동 총 2886가구 중 전용면적 36~84㎡ 122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는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 동탄인덕원선 호계사거리역(가칭) 역세권에 해당되며 차량 이용 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

출입이 편리하다. 호계동 일대와 평촌신도시에 조성된 교육시설과 대형마트 등의 생활 주요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삼정기업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일대에서 '성산삼정그린코아웰레스트2단지' 공공지원민간임대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08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2년 단위 전세 계약 형태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단지는 창원국가산업단지과 안민초등학교 등에 인접해 있다. 단지 배후에는 장복산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김대환 기자



##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 9개월 만에 축소

권역별 대체로 낙폭 줄어  
매매수급지수는 소폭 ↑

최근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9개월 만에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심리는 소폭 회복세를 보이면서 8개월 만에 반등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67%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74%)보다 0.07%포인트 축소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9주 만에 역대 최대 하락을 멈췄고, 하락폭은 9개월(39주) 만에 둔화됐다.

권역별로는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체로 낙폭이 줄었다.

동북권에서는 노원구(-1.20%→-1.17%)가 상계·중계·공릉동, 도봉구(-1.21%→-1.12%)는 방학·쌍문·창동 소형 평형, 성북구(-1.06%→-0.97%)는 석관·정릉동 위주로 하락폭이 감소했다.

이번에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강남(-0.44%→-0.41%), 서초(-0.55%→-0.38%), 송파(-0.49%→-0.37%), 용산(-0.92%→-0.71%)도 하락폭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예고와 금리 인상 기조 유지로 매수 관망세가 길어지고 매수세가

한산한 상황으로 매수 희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매도 호가 하향 조정세가 둔화되고 매물 철회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서울 지역의 매매수급지수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2일 기준)는 64.1로 전주(63.1)보다 1p 상승했다. 지난해 5월 첫째 주 91.1을 기록한 이후 8개월(35주) 만에 반등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서울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매수심리가 다소 회복 기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서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실수요자들의 시장 진입이 제한적이라 규제 완화 효과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 수요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은 금리여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마무리돼야 수요자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환 기자 kdh@